

1930년대 소설에 나타난 여성육체의 재현양상

김연숙*

1. 근대 소설에서 재현되는 육체와 역사적 신경과민
2. 사유화(私有化)된 신경증 드러내기 - 남성작가의 경우
3. 도착적(倒錯的)인 여성 육체 - 여성작가의 경우
 - 3.1.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
 - 3.2. 몸으로 발화되는 여성의 언어
4. 맺는 말

* 경희대 강사

국문초록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에서 질병은 단순히 소재의 차원이 아니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의 신변잡기적 서술로 파악되기보다는, 하나의 의미있는 문학적 담론으로 여겨져 왔다. 즉 고민, 우울, 피로, 신경쇠약, 신경과민, 질병 등등은 사회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것이 기존 논의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여성인물의 경우 이런 해석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남성과 다르게 재현되는 여성 육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왜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1930년대 여성 작가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의 육체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같은 신경증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신경과민과 히스테리로 분리된다. 이때의 히스테리는 일종의 짜증, 결핍, 질투, 고부간의 갈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남성의 신경증은 이에 비해 예술 창작 동기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고민의 메타포이다. 이들 신경증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는 남성이고 그들의 응시는 여성의 것을 개인적인 신경증으로 치부하고 만다.

남성의 언어와 남성의 국가에서 여성작가들은 오히려 여성의 육체를 도착시킨다. 그들이 그려낸 도착적인 여성 육체는 특히 어머니의 몸이다. 강경애, 백신애의 작품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유한 경험은 육체가 세계로 의미를 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의미 발화가 코라(chora)의 풍부한 근원이 아니라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으로 전락하고, 여성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와 광기로 위장된다.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성은 보다 강력한 아버지의 질서를 희구했고 부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더 가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재가 근원적인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체화된 몸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몸을 통째로 드러내 보이고, 히스테리와 광기로 위장된 여성의 목소리는 그 낯선 이질성을 틈새로 끼워 넣는 데 성공한다.

핵심어 : 여성육체, 히스테리, 어머니의 몸, 광기, 비체화

1. 근대 소설에서 재현되는 육체와 역사적 신경과민

1921년 염상섭이 「표본실(標本室)의 청(靑)게고리」를 발표했을 때, 김동인은 소설 속 주인공을 두고 〈햄릿의 출현〉이라며 흥분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제까지 〈조선 사람은 생활이나 생에 대한 번민을 그다지 느끼지 않은 채, 단지 〈모든 닳을 팔자라 하는 무형물에 넘겨 버리고 명일의 조반(朝飯)을 준비〉했었으므로, 〈이러한 조선 사람의 산출한 소설이 햄릿식 다민다한이 있을 리 없었다〉, 따라서 이 작품이 보여주는 〈침울과 다민(多悶)〉(강조-인용자)에 〈선망과 경이의 눈을 던〉짐과 함께, 〈새로운 햄릿의 출현에 통쾌감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¹⁾

고민과 우울이 쌓이고 쌓여 신경과민·신경쇠약이 체질인 양 내면화된 인간, 그런 이가 김동인이 지칭한 ‘햄릿’형 인간이다. 이와 같은 조선의 ‘햄릿’은 그러나 염상섭만이 그려냈던 독특한 인물은 아니었다. 낭만적 열정과 계몽적 신념이 근대문학 계몽기로 일컬어지는 1910년대의 특징이었다면 1920년대 즈음부터 고민 많고 우울한 지식인의 신경과민은 당대의 보편적인 정서였다. 그 새로운 정서의 소설적 시도가 「표본실의 청게고리」였던 바, 은연중 개개인을 엄습하고 있던 분위기가 작품에 정확하게 표출된 것에 대해 김동인이 그토록 흥분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김동인을 비롯한 당대 문인들에게 ‘새로운 햄릿’은 거울 속 자신을 보는 듯한 정서적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본실의 청게고리」에서 〈나〉의 신경과민은 단지 개인적인 정서나 시대의 유행 풍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도로 세계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나〉의 신경과민은 실험실 유리판 위에 사지를 뻗고 있는 개구리에게 조선현실을 투사시켜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서구적 근대

1)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16』(조선일보사, 1988), p.25.

속에 식민지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고민은 신경과민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광기'로 발산된다. 『표본실의 청계고리』에서 <나>가 만난 또다른 인물 <김창역>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던 인재였지만, 가정사적인 불행과 함께 사상사건에 연루되어 4개월간 감옥살이를 하는 괴로움을 겪는다. 출옥 후 부인의 배신을 알고 급기야는 번득이는 광기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김창역의 광기는 그것은 비록 파국적이거나 온갖 문명적이고 세계사적 내포를 동반한 <나>의 신경과민과 대비되는 '신념'에 필적하는 무게를 지닌다. 이 때문에 그는 광기를 통해 <나> 또는 그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류의 역사적 신경과민을 극복한 사람²⁾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그의 광기는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사회적 사건에 의해 촉발된, 개인이 사회화되지 못하는 폐쇄적 시대 상황에서의 초월적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시적인 역사·사회적 좌표를 펼쳐 놓고 그 위에서 신경과민이나 광기를 읽어내는 관점은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에서 흔히 나타난다. 더구나 신경과민이나 광기보다 병적 증후가 미약한 정서에서도 이런 관점은 유효하다. 피로나 우울같은 지극히 사적이고 주관적인 심리상태조차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정서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³⁾ 동경 유학생 이인화의 식민지 조선은 무덤이요, 구더기가 들끓는 무덤이라는 신경질적인 외침과 그의 우울, 소설가 구보씨의 만성적인 피로와 그로 인한 권태는 식민지 남성지식인을 사로잡고 있는 보편정서로 해석된다. 심지어 피로와 우울은 여성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혹적인 남성적 자질로까지 표현되기도 한다.⁴⁾ 여기에 이르면 피로와 우울은 이미지로 소비

2) 이경훈, 『미친 삼층집』, 『어떤 백년, 즐거운 신생』(하늘연못, 1999), p.221.

3) 이른바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산책자' 개념은 이런 피로한 남성 지식인이, 우울한 남성 지식인이 도시를 방황하는 구도에서 읽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4) 이선희의 『처의 설계』(1940)에서 남성인물의 '피로'와 '우울'은 아주 매력적인 요소이다.

되는 문화코드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의를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우리는 이른바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맥락에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남성이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상, 박태원, 최명익 등 통상 1930년대의 모더니즘적인 작가로 분류되곤 하는 작가들의 작품에서 폐결핵이나 성병 등의 질병이 촘촘하고도 깊게 드리운 의미망을 형성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⁵⁾ 예를 들어 김윤식이 <이상문학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은 각혈과 관련된 자살과 죽음의 등가사상>, <그가 본질적·결정적으로 앓았던 결핵을 공적인 자리에 이끌어 올려, 공적으로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러하다.⁶⁾ 이에 따르자면 질병은 단순히 소재의 차원 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경험의 신변잡기적 서술로 파악되기보다는, 하나의 의미있는 문학적 담론으로 생각될 것이다. 즉 고민, 우울, 피로, 신경쇠약, 신경과민, 질병 등등은 사회적·역사적 성격을 가진 하나의 문학사적 의미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 논의의 공통된 입장이다.⁷⁾

<려순옥은 청재의 그 턱수염이 찌머케 난 속에 아름다운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하는 남성적 미모가 조왔고 더구나 그 세련된 피로(疲勞)와 우울과 교만이 늘 자기를 무시하는 것가튼 데 매력을 느끼었다.>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태학사, 1988), p.156.)

- 5) 이경훈, 「모더니즘 소설과 질병」, 『어떤 백년, 즐거운 신생』(하늘연못, 1999), p.133.

그외 김한식의 「30년대 후반 소설에서 질병의 상징성 연구」, 『현대소설과 일상성』(월인, 2002), 이재복의 「이상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한양대 박사, 2001)에서도 이와 비슷한 해석을 찾아볼 수 있다.

- 6) 김윤식, 『이상연구』(문학사상사, 1988), p.68, pp.133~138 참조.
7) 한편 김양선은 1930년대 중반 이후 모더니즘 소설에서 병든 육체의 은유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성적인 것으로 기호화된 몸, 신경증이나 우울증을 앓는 남성의 몸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근대적 삶에 포획되면서도 동시에 저항하는 남성 주체의 불안한 내면을 기호화하고 있다고 결론내린다.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8호(예림기획, 2002)) 이런 관점은 병든 육체에 대한 현상 해석에서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본 고에서 여성 육체가 재현되는 현상을 읽어내고자 하는 관점도 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사회와 시대의 병리성을 드러내는 알레고리로서 질병과 병적 징후가 쓰여지고 있다면⁸⁾ 왜 ‘햄릿’의 출현만 거론하고 ‘오펜리어’는 나타나지 않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1930년대 문학에서 남성 지식인의 육체와 질병이 그토록 중요한 코드로 읽힐 수 있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지 물어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혹 여성의 육체는 다른 의미로 재현되는 것이나 아닌지, 그렇다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왜 다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본고에서는 1930년대 소설 작품에서 여성의 육체가 재현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⁹⁾

2. 사유화(私有化)된 신경증 드러내기

- 남성작가의 경우

1930년대 소설이(특히 모더니즘 소설) 남성의 몸을 병약한 몸,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걸린 몸, 여성적인 것으로 기호화된 몸으로 재현하고, 그런 자신의 육체를 발견해가고, 육체에 각인된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는 주체를 형상화했다면,¹⁰⁾ 남성작가에 의해 그려진 여성의 몸의 이상(異常) 징후는 그야말로 개인적인 병리현상에 속한다. 병든 어머니와 구식아내, 도발적이고 화려하지만,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신여성의 모습이 전형이라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에 속하는 채만식의 경우,

8) 질병을 은유적으로 사회적으로 읽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수잔 손탁(『은유로서의 질병』), 가라타니 고진(『일본근대문학의 기원』)의 글에서 전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9) 특히 본고에서는 여성작가의 경우 남성작가와 다르게 여성의 육체를 재현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1930년대 남성작가와 대비적으로 여성작가의 작품을 고찰하고자 한다.

10) 김양선, 앞의 글, p.151.

여성의 육체를 재현하는 방식을 예로 들어보자. 당대 사회현실을 풍자적으로, 비판적으로 한편으로는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태평천하」(1938)는 비교적 여성인물들이 배경처럼 등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천하」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특히 그녀들의 육체나 질병에 관련한 서술을 꼼꼼히 따져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우선 「태평천하」의 〈고씨부인〉은 열 여섯 살에 시집와 지금 47세가 된 중년부인이다. 그녀는 만석꾼 부잣집의 만머느리이지만 지독한 구두쇠 시아버지 윤직원의 살림살이 때문에 기본적인 의식(衣食) 요구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살아간다. 게다가 그녀의 시어머니 〈오씨〉가 죽은 걸 〈압제 밑에서 해방〉이라거나 〈남의 집 종으로 치면 속량이 난 셈〉이라고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고씨부인〉은 다른 여성 가족 구성원들(윤직원의 손주 며느리들이나 딸)보다 훨씬 더 험난한 삶을 살아왔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죽고 난 후 그녀에게는 변화가 있는 듯했지만 〈기만 조금 꺾고 지내게 되었을 뿐이지, 실상 아무 실속도 없〉다. 마땅히 만머느리가 차지해야 할 집안의 안방은 〈윤직원〉이 조석 식사를 한다는 핑계로 빼앗아 〈서울아씨〉(딸)와 〈태식〉(아들)에게 주어버렸고,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 전권(全權)〉 또한 〈윤직원〉의 〈처결〉에 따라 〈고씨 부인〉을 건너뛰어 맏손자 며느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고씨부인〉은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강제적으로 박탈당한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같은 그런 처지에서 더구나 〈둘째 아들 중학을 낳은 뒤로부터 스물네 해 이 짝, 남편 창식과 금슬이 딱 끊겨, 생과부로 좋은 청춘을 늙혀버렸〉으니 그녀는 「태평천하」에 나오는 여성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고씨 부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히스테리’, ‘심술’, ‘약’, ‘오두’이다.

(가) 그러니 고씨로 앉아서 당하고 보면 심술에다가 악박에 날 게 더 있겠

읍니까.

그래도 작년 정월 시어머니 오씨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30년 눌러서 살아 온 타성으로, 고양이 앞에 쥐같이 짝소리도 못하고 마음으로만 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폭군이 하루 아침에 없고 보매 기는 탁 퍼지는데,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뜻과 감지 않으니, 불평은 할 수 없이 악으로 변해버리게만 되었던 것입니다.¹¹⁾(강조- 인용자)

(나) 시방 오늘 저녁만 하더라도, 아까 쪽대문을 열어놓았다고 윤직원 영감이 군육질을 했대서 그 원혐으로다가 기어코 한바탕 화룡도를 내고랴야 말 작정으로 그렇게 버르고 있는 참입니다.

하기야 쪽대문을 열어놓은 것도 실상 알고 보면, 우정 그런 것이지요. 윤직원 영감이 보고서 속 좀 삼하라고, 그리고 그 끝에 무어라고 욕이나 하게 되면 싸움거리나 잠만할 양으로…… 용 못된 이무기 심술만 남더라고, 앉아서 심술이나 부려야 속이나 시원하지요.(p.62, 강조- 인용자)

(다) 고씨는 영영 시아버지와 싸움거리가 생기지를 않으니까, 아무고 걸리는 대로 붙잡고 큰 소리를 내서 시아버지의 비위를 건드려서, 그래서 욕이 나오면 언덕이야 트집을 잡아 가지고 싸움을 하겠던 것인데, 고놈 경순이놈이 하는 양이 우선 비위에 거슬리고 본즉, 가뜩이나 부아가 더 치밀고, 그렇지만 이판에 부아를 돌구어주는 거리면 차라리 해롭잖을 판속입니다.(p.64, 강조- 인용자)

〈고씨부인〉의 ‘히스테리’는 어떤 심리적 이상이나 신체적 징후보다는 ‘심술’과 ‘악’이라고 표현된다. 〈윤직원〉은 이를 ‘오두발광’이라 표현하기도 하지만 히스테리적 증상으로 간주할만한 것은 작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¹²⁾ ‘히스테리’는 ‘비정상성’의 표상을 거의 대부분 함축하고 있기 때문

11) 채만식, 『태평천하』, 『채만식전집』 3(창작과 비평사, 1989), p.62.(이하 인용문은 페이지 표시만 명기함)

12) 히스테리는 역사적 시기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디로 이렇이러한 것이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리저리 헤매’ 다니는 자궁, 혹은 자궁의 질병이라는 초기 정의처럼 히스테리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병리현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에 그 양상은 백과사전적이라 불릴 만큼 매우 다양하긴 하나 대체로 신체 반응이 큰 것과 작은 것 두 가지로 분류되어왔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예컨대 간질 및 그와 유사한 발작들, 경련, 호르몬란, 두통, 메스꺼움, 졸도, 상상 입신 등이며 후자는 불감증이나 촉각마비와 같은 감각능력의 상실, 시각, 청각, 후각의 전체 혹은 부분적 상실 등이 속한다. 또한 신체의 전체 혹은 부분에 나타나는 마비 현상들, 시각상실, 보행불능, 불안정한 걸기나 서기, 쓰러질 것 같은 신체적 상태, 생리불순, 거식증이나 폭식증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고씨부인>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히스테리'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이성이 제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표출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나), (다)에서 보듯 <고씨부인>이 스스로 싸움을 시작하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점에서 '히스테리'라 규정하기가 더욱 난감하다. 히스테리 연구에서 안나 O로 잘 알려진 베르타 파펜하임의 사례는 히스테리가 가부장제의 감시의 시선을 피해 자신의 욕망을 은밀하게 전시하는 한 방법임을 보여준다. 파펜하임은 백일몽을 통한 '개인극장'을 만들어 히스테리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억압을 벗어나는 출구를 마련한다. 즉 무의식적인 자아의 분열이 사실은 여성이 존재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히스테리는 가부장제의 억압과 타협하는 여성적인 전략이라는

그후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 정신적 억압 특히 성적 억압의 징후로 히스테리를 분석했고, 더 나아가 히스테리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저항과 도전행위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운명에 대한 여성의 불만족과 히스테리와의 관련성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목을 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한편에서는 히스테리를 들먹이면서 여성 참정권론자들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전단이 유포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프로이트와 브로이어의 사례연구들은 그들의 환자들이 모두 자신의 지적 능력을 펼치는 것이 좌절된 총명한 여성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박찬부·정정호 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한신문화사, 1997) ; 줄리아 보로사 저, 홍수현 역, 『히스테리』(이제이북스, 2002) ; 프로이트 저,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열린책들, 1998) 참조.

진술도 가능하다.¹³⁾ (나)에서처럼 쪽대문을 고의로 열어놓는 행위는 평소 <윤직원> 영감이 엄금하는 일이다. <집안엿 것이 형적없이 자꾸만 대문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것만 같고> <거지 등속의 반갑잖은 손님이 들어올 위험이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온 집안이 다 지켜야 마땅할 <윤직원> 영감의 논리이자 명령을 <고씨부인>은 정면으로 거스른다. <윤직원 영감이 속 좀 상하라고> <우정> 쪽대문을 열어 놓으며 그로 인해 '싸움거리'를 마련하고자 하는 <고씨 부인>의 생각은 계획된 반란이나 다름없다. 그래도 싸움이 시작되지 않자 급기야는 (다)에서처럼 손자 <경손>에게 <생트집을 잡>아 큰 소리를 내서 <윤직원> 영감이 대응하기를 유도해낸다. 결국에는 <기다리고 있던 판> 즉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욕설이 왔다갔다하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야 만다.

이처럼 의도된 반란의 성격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작가에 의해 '히스테리'라는 명백한 서술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히려 그 명백한 규정이 함의하는 바일 것이다. <고씨부인>의 반란은 더 이상 내몰릴 데 없이 끝까지 갔다고 판단한 며느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발악하는 그런 것이다. 그 발악은 구체적으로 <윤직원>에게 대어드는 행위이며, 나아가 여성을 타자화시키는 가부장제 권력에 포섭되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고씨부인>의 행위는 반항 또는 저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만식의 경우 그것을 '히스테리'라는 '비정상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의미화시켜 놓는다. 그녀의 저항은 있어서는 안될 불온한 여성 타자의 욕망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질서를 거스르는 그 불온성 때문에 작가는 그것을 애써 '히스테리'임을 즉 비정상적인 것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구의 사유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표현 불

13) 임옥희, 「히스테리: 여성의 육체 언어/권력/욕망」,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세미나팀 엮음, 『페미니즘과 정신분석』(여이연, 2003), pp.105~110. ; 이명호, 「히스테리적 육체: 몸으로 말하기」(한국여성연구소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3. 8), pp.4~8 참조.

가능의 상태를 어떻게든 달리 바꿔쓰기 위해, 정상성의 범주에 속할 수 없는 예외적인 그 모든 것을 '히스테리'로 개념화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일맥상통한다.¹⁴⁾ 세계에 대한 정당한, 자연스러운 대응방법을 찾지 못한 여성의 이질성 발현이나 남성 주체에 대한 저항은 모두 있어서는 안될 불온한 것들이기 때문이다.¹⁵⁾

한편 이때의 '히스테리'는 지극히 사적(私的)인 정서로 치부되고 있다. 신경질, 짜증, 초조, 불안, 질투, 변덕스러움 등은 모두 개인의 기질 탓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여성들 중에서도 노처녀, 소박맞은 아내, 과부, 폐경기 이후 여성, 홀시어머니 등은 우리 문학에서 히스테리의 전형적 인물로 그려져 왔다. 그녀들은 자의든 타의든 가부장제 구도 속에 편입되지 못한 이들이다. 따라서 그들의 자아나 욕망의 표현은 남성의 시선에서는 지극히 낯설고 불온한 것일 뿐이다. 남성의 시선은 이질적인 그녀들의 목소리에 '히스테리'라는 병리적 해석을 덧씌운다. 이로써 여성의 욕망이나 목소리는 사적(私的) 신경증에 가려져 효과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이다.

채만식의 다른 작품인 『탁류』(1937~1938)에서 <초봉>이나 <윤희>가

14)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선·윤명숙 역, 『히스테리』(여이언, 2003), 1부 참조.

15) 작가의 명백한 히스테리 규정은 여성의 이질적인 타자성을 증명해내는 역설을 가능하게 한다. 마치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연구에서처럼 '태평천하'에서도 분석가/피분석가의 위상이 전복된다. 고씨부인의 '오두발광' 혹은 '히스테리'와 '윤직원' 영감의 정상성은 말싸움을 통해서 '논리 / 허위, 합리 / 강압'으로 역전된다. 작가는 '고씨부인'을 비정상상으로 애써 규정하나 작품을 통해 결국 '고씨부인'의 언어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마치 프로이트가 도라의 언어를 반복하고, 정신분석은 히스테리의 언어를 이론으로 번역한 것처럼 말이다. 「태평천하」의 역설적인 힘은 바로 여기에서 도출된다. 채만식은 드러나 있는 '태평천하'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억압된, 히스테리를 부리는 타자들의 언어를 문학 작품으로 번역해낸 것이다. 이 때문에 '윤직원' 소리높여 찬양하는 '태평천하'의 허위성이 드러나고, 그것은 결국 전복되기에 이른다. (졸고, 「태평천하에 나타난 여성 타자의 근대체험과 대응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8호(태학사, 2003))

남성 인물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나 「여자의 일생」(1943)에서 여장부요 여걸이었던 〈박씨부인〉을 히스테리에 빠진 과부로 치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박씨부인〉의 경우 과대망상, 변덕스러움이라는 히스테리적 징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녀가 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스테리라는 병에 걸린다는 진술은 그 함의를 다시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자의 일생」에서 〈박씨부인〉과는 대조적으로 히스테리와 거리가 먼, 이상적인 여인인 며느리 〈진주〉가 속편 「어머니」에서 친일적인 모성 담론으로 매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여성 타자의 욕망과 이질성이 제거됨으로써 제국주의에 포획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 도착적(倒錯的)인 여성 육체 - 여성작가의 경우

3.1.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

남성의 시선이 여성의 자기표출, 욕망표현을 사적(私的)인 신경증으로 애써 감추어 놓았다면 여성이 응시하는 여성 육체는 이와는 다르다. 강경애나 백신애는 우선 임신-출산이라는 여성의 경험을 전면으로 드러내놓는다.¹⁶⁾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이상적인 의식의 차원에서는 충족·발전·해방을 의미하지만, 현실적인 경험의 차원에서는 결핍·생존·억압을 의미하기에 여성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모성은 여성 억압을 가장 총체적이고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체험이자 가장 배타적이면서도 순수한 여성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여성적 체험의 이런 의미는 일제 강점기라는 식민지 현실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

16) 강경애의 「어머니와 딸」(1931), 「소금」(1934), 「지하촌」(1936), 백신애의 「적빈」, 「빈곤」 등이 특히 그러하다.

17) 김미현, 「태초에 어머니가 있었다」, 『여성문학을 넘어서』(민음사, 2002), p.254.

없다. 절대 빈곤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서 또다른 생명이 분할되는 출산은 어머니와 자식 둘 다 존재위기에 몰고 가는 일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어머니는 아이를 낳기 위해 혹은 낳고 난 후 먹을 것을 구하나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주인 몰래 밭에서 무를 뽑아 쪼갠다, 잎사귀까지 씹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삼키며(백신애, 「빈곤」) 애를 낳거나, 장을 푼 뜨거운 물 두어 숟가락 먹고 <셋빨간 고깃덩어리>를 <떨어>뜨리거나(백신애, 「적빈」), 아이를 낳은 후 주인 몰래 파뿌리를 우쥌 씹다가 <이가 시뻘하며 딱 맞질>려 <허끝으로 우물우물하여 목으로> 차고 뺏뺏한 파를 넘겨대는(강경애, 「소금」) 어머니가 여성작가들이 그려내는 모습이다. 그런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아이의 사정도 별반 나을 게 없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비에 젖은 헛간 흙바닥(「소금」), 맨 흙바닥(「적빈」)에서 혹은 <배추고랑에 엮드려진 그(어머니-인용자)의 속옷 가랑이에 끼인 채>(「빈곤」) <팔과 다리를 고물락거>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머니의 몸은 비체화(卑體化, abject)되고 아이라는 새로운 생명은 거부된다.¹⁸⁾

영애를 낳아 놓고 그 다음날로 보리마당질 하던, 그 지긋지긋하던 때가 떠오른다. 하늘이 노랗고, 핑핑 돌고, 보리 이삭이 작았다 커 보이고, 도리깨를 들 때, 내릴 때, 아래서는 무엇이 뭉클뭉클 나오다가 나중엔 무엇이 묵직하게 매어달리는 듯해서 좀 만져 보려 했으나, 사이도 없고 또 남들이 볼까 꺼리어 그냥 참고 있다가 소변보면서 보니 허벅다리엔 피가 흥건했고 또 주먹 같은 살덩이가 축 늘어져 있었다. 겁이 더러 났지만 누구보고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던, 그 살덩이가 오늘까지 늘어져서 들어갈 줄 모르고 또 무슨 물을 줄줄 흘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름에는 더 덥고 또 고약스

18) 어머니들은 '자식! 흥 자식이 다 뭐야!'(「소금」)라고 체념하거나 '...없는 놈에게 글세 자식이 뭐냐, 웬 자식이냐.'(「지하촌」)며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생존 위기의 절박한 심정은 말로만 아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아 살해를 시도하기도 한다.(「소금」) 심지어 「빈곤」(백신애)에서는 아버지가 임신한 아내의 배를 걷어차 세 번이나 유산이 되었고, 네 번째 아이는 태어난 지 삼일 만에 아버지 발길에 걸려 채여 죽고 만다.

런 악취가 나고, 겨울엔 더 춥고 항상 몸살이 오는 듯 오삭오삭 추웠다. 먼 길이나 걸으면 그 살덩이가 붙이 붙는 듯 쓰라리고 또 염증을 일으켜 퐁퐁 부어서 걸음 걸을 수가 없으며 나중엔 주위로 수없는 종기가 나서 그것이 끓아 터지느라 기막히게 아팠다. 이리 아파도 누구에게 아프다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병이었다.¹⁹⁾

「지하촌」(강경애, 1936)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자궁이 빠져나와 괴로워한다. 아이를 품어 키워 생명탄생을 일으키는 공간으로서의 자궁은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고약스러운 악취가 나고> <염증을 일으키고> <수없는 종기가 나>는, 축 늘어진 살덩이가 되고 말았다. 비천한 존재로 추락한 자궁은 어머니의 몸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몸 내부에 있던 자궁이 외부로 나왔지만 그것은 축 늘어진 채 매달려 <들어갈 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제거해버릴 수도 없는 그런 것이다. 이제 자궁은 안에도 밖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며 고통과 추함을 의미하는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자궁은 어머니의 몸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준다.²⁰⁾ 어머니의 몸은 더 이상 생명과 의미를 생성하는 풍요로운 공간이 아니다. 자궁은 폐기되어야 마땅할 더러운 오염물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것이다. 또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은 어머니 노릇(mothering)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하지만 그렇다

19) 강경애, 『지하촌』(1936), 『강경애전집』(소명출판, 2002), p.613.

20) 백신애의 「적빈」에 등장하는 매춘대 또한 비체화된 여성의 몸을 보여준다. 그녀는 출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지독한 가난 때문에 밖으로 내보내야 할, 배출되려하는 똥을 억지로 끌어들여야 하는 <코끼리 껍질 같은> 몸을 보여준다.

매춘대는 길을 가다 뒤가 마려웠지만 똥을 놀 수가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간들 밥 한 술 남겨 두었을 리가 없음에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 굶고 자야 할 처지이므로 똥을 누어 버리면 당장에 앞으로 거꾸러지고 말 것 같았던 까닭이다. 그는 홀러내리는 옷을 연방 움켜잡아 울리며 코끼리 껍질 같은 몸똥이를 별름거리는 그대로 뒤가 마려운 것을 무시하려고 입을 꼭 다문 채 아물거리는 어두운 길을 줄달음치는 것이다.>(백신애, 『한국문학전집』 7(학원출판사, 1996), p.245.)

고 해서 그만두지도 못한다. 정상/비정상, 도덕/비도덕, 선/악 등 모든 상식적인 기준의 경계를 흐려놓는 도착적인 몸이다.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은 언어화된 목소리를 내어놓지 못한다. 그녀들은 극한적인 심리를 발산할 따름이다. 그러나 그것은 신경증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할 만큼 극단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소금」의 어머니는 가난 때문에 남의 집 젖어미로 간다. 어머니와 헤어진 두 딸은 병으로 차례차례 죽고 자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후회와 자식 곁을 떠나게 만든 가난한 상황에 대한 원망은 '분'으로 표출된다.

이제도 그는 주인 마누라와 한참이나 싸웠다. 만일 주인 마누라가 좀더 야단을 쳤다면 그는 칼이라도 가지고 달라붙고 싶었다. …(중략)… 그리고 좀더 싸우지 않고 들어가는 주인 마누라가 어쩐지 부족한 듯하였다. 그는 지금 땅이라도 몇십 길 파고야 견딜 듯한 분이 우쭐우쭐 올라왔던 것이다.(「소금」, p.522. - 강조, 인용자)

어머니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남편과 자식의 죽음, 굶주림, 빈곤 등의 원인을 <그>(「소금」의 어머니)가 찾아낼 수는 없다. 어머니는 별 상관도 없는 <주인마누라>에게 <칼이라도 가지고 달라붙고> 싶고 <주인마누라>마저 상대해주지 않자 <땅이라도> 파고 싶은 '분'을 삭일 수 없다.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자신의 분노를 풀어야 할 지 찾을 수 없다. 분노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당대의 사회·역사적인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을 찾지 못하는 분노는 언어화될 수 없고 따라서 설명되어질 수 없다. 말 그대로 발작적으로 솟아나는 '분' 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광기라는 차원으로 진전된다면 과연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3.2. 몸으로 발화되는 여성의 언어

김말봉의 「망명녀」(1932.1)에서 <산호주>라는 기생은 술 자리에서 손님들과 다투게 된다. 밤 열두 시가 훨씬 넘은 시간 <산호주>는 몸이 아파 손님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누워있었다. 그녀는 오늘만 참고 손님 접대를 해주면 보름을 쉬게 해주겠다는 주인의 약속에 간신히 술자리에 나가보니 <오주사>라는 손님이 제멋대로 굴고 있다. 그는 어지럼증이 나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산호주>에게 사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흥분하며 화를 낸다. 그는 몸이 아프다는 <산호주>의 사정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좌석 여러 사람을 다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돈을 주고> 너를 불렀다는 <오주사>의 말은 <산호주>를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돈을 지불하면 상품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요 이때 <산호주>는 상품과 같은 존재로 취급될 뿐이다. 또 <오주사>는 방을 나가 버리려는 <산호주>를 억지로 잡아끌며 욕설을 퍼붓는다.

나는 이 때 내 귀에서 급시로 폭포가 내려 쏟아지는 듯 귀가 울고 내 눈앞에서는 바닷물이 산을 삼키고 큰 나무가 바람에 불려 가지가 꺾어지고 뿌리가 뽑히며 산 꼭대기에서 바윗돌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호흡이 막히고 사지가 굶굶하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독한 히스테리인 모양이에요. 나는 이를 부드득 갈면서

“무엇이 어째? 이 건방진 자식아, 누구에게다 주정을 하는 거야?”

하고 오른 손을 들어 오 주사의 뺨을 힘껏 갈겼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오 주사의 억센 주먹 안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내 얼굴에는 오 주사의 거센 손바닥이 두 세 번 지나갔습니다. 나는 힘을 다하여 내 한 손을 빼어가지고 곁에 있는 술주전자를 들고서 힘껏 오 주사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말리는 모양입니다.

나는 귓전에 “산호주가 미쳤구나.” 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나는 미치고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십번이나 하였는지요. 스스로 내 목숨을 잘라버릴 용기가 없는 나는 차라리 내 감정과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미쳐가지고

모든 고통을 잊으면, 또 미쳐가지고 하고 싶은 말과 가슴에 서린 분풀이를
실컷 하고 말았으며 하는 꿈상에 몇 번이나 취하였던지요. 나는 오늘 그러한
내 욕망을 이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몹시도 나를 유쾌하게 만들었습니다.(김말
봉, 「망명녀」, 1932, 강조-인용자)

〈오주사〉의 욕설과 거친 행동에 거의 대응하지 않다가 〈산호주〉는 급기야 〈호흡이 막히〉는 〈지독한 히스테리〉를 느낀다. 〈오주사〉의 폭언과 억지논리에 몸이 먼저 발화(發話)하는 것이다. 이후 그녀는 〈오주사〉의 뺨을 때리고 술주전자로 〈오주사〉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동과 ‘말’로 대항한다. 주위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간주하지만 자신은 오히려 〈미쳐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하고 싶다는 평소 ‘욕망’이 실현된다는 데 쾌감을 느낀다. 기생은 매춘여성이라는 점에서 여성 중에서도 더 억압받는 존재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토로하거나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는커녕 ‘돈’을 매개로 감정과 육체를 모두 남성에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이 기생이다. 이를 벗어나 〈산호주〉가 스스로 발화(發話)하는 순간 이것은 ‘광기’라고 규정된다. 상식이나 사회통념이 제시하는 기준을 벗어나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광기’이다. 그러나 그 상식과 사회통념이 온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라면 그것을 일탈하는 여성의 ‘광기’는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망명녀」의 경우 〈산호주〉의 ‘광기’는 엄밀히 말하면 이성이 제어할 수 없는 감정의 폭발 상태일 따름이다. 그녀는 격앙된 상태에서 평소 내면화되어 있던 기준의 규율이나 금기를 깨트리고 〈하고 싶은 말과 가슴에 서린 분풀이〉를 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도 그녀는 주위에서 ‘미쳤다고 하는 목소리를 듣기도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평가(욕망을 이루어 유쾌하다는)를 내리기도 한다. 온전히 ‘미쳤다고 여기기는 힘들다. 오히려 ‘광기’라는 틀을 빌려, 자신을 ‘광기’로 위장하는 것이라 판단할 여지가 더 많다. 마치 ‘폐펜하임’이 ‘히스테리’라는 고도의 연극을 연출해내듯이 말이다.

백신애의 「광인수기」(1938)는 여성의 '광기'에 대해 한층 더 교묘하고 복잡한 위장술을 보여준다. 남편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 미쳐버린 <나>는 비 오는 날,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하소연하며 다리 밑을 돌아다닌다. 자전적 고백의 형식을 취한 이 작품에서 <나>는 남편과 첫 만남 - 혼인 - 고된 시집살이 - 남편의 사상활동 - 안정된 생활 - 남편의 외도에 이르는 자신의 내력을 이야기한다. 우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나>와는 다른 남편의 세계이다. 일본 유학생 출신인 남편은 근대 지식인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지식과 과학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합리와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해내는 남편은 그러나 <나>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참기 어려운 존재다.

<나>의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지만 비교적 부인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첫날 밤,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사랑에 대한 확답을 받기를 재촉한다.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을 연거푸 하면서 명증한 대답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는 회의(懷疑)→질문→대답의 과정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이성적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학의 이름으로 존재를 규정하고 스스로 진리로 입증하려는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아내는 <그러나 그때는 그이가 왜 그런 말을 물을까, 그런 말을 물어서 무엇하려는가, 결혼한 이제는 할 수 없는데, 너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되는 일인가.>라는 생각에 남편의 질문을 <기막힌 일>로 여길 뿐이다. 이후 여러 난관을 거쳐 어느정도 결혼 생활에 안정을 찾을 즈음 남편은 외도를 하기 시작한다. 남편은 새로 생긴 여자에게 자신이 조혼의 피해자임을 강변하고, 노모와 그 여편네가 가여워서 자신의 삶을 희생했다고 주장한다. 결혼 첫날 밤부터 <우리 색시 이쁘다고 물고 빨고> 하던 행동이나 자식을 셋이나 낳도록 살아온 과거는 모두 부정하고 스스로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기만적인 남편의 말은 자기 합리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이기적인, 주체중심주의적인 태도일 뿐이다. 그러나 남편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직후에도 아내는 참는다. <하도 많이 참

고 보아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나 보다>며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보살피고 나니 남편이 돌아와 전과 다름없이 살갑게 군다.

“여보, 이리 오… 왜 노했소, 그러지 말고 이리 와요.”

하며 자꾸 웃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남자란 게 이런 건가? 나는 모르겠다 몰라…어찌 된 셈인가요 글썸.(중략)

이윽고 그는 잠이 들다 말고 소스라치듯 미소하며 다시 한번 꼭 껴안겠지요.

“왜 새삼스레 이러는 거요? 20년이나 꼭 한가지로 변함없이 이러는 우리 사이건마는 그리 내가 사랑스러운 가요?”

하고 한번 시치미를 떼 보았지요.

“암…내게 너만치 충실한 사람이 없고 미더운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지요. 하도 놀라와서요. 하하하…(백신애, 『광인수기』, 1938)

남편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할 때는 아내가 너무 무지하므로 <지적(知的)으로 목말랐>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아내에게는 <너만치 충실한 사람이 없고 미더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고 설명한다. ‘원인 - 결과’를 설명해내는 방식은 근대적이지만 그것은 형식일 뿐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남편이 자신의 이론에 자족하고 스스로 정당화할 때 아내는 그에 반박할 말을 찾아내지 못한다. 지금 미친 여자가 되어 비를 맞으며 돌아다닐 때에야 남편의 그것들이 <온갖 거짓말과 괴로운 이론을 끌어다 붙이려고 애쓰는 그 꼴 / 용하게 꾸며내는 헛바닥의 장난 / 공부를 잘못하면 제 행동이 옳든 그르든 간에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교묘하게 이론만 갖다 붙여서 그저 합리화하려고 하는 재주>라고 하느님께 고자질하지만, 그 당시의 아내에게 ‘말하기’는 불가능하다.

남편의 뻔뻔스러움을 참으며 밤을 새고 난 후 아내는 심한 고열에 시달

린다. 반박할, 저항할 말을 찾아내지 못한 아내는 열이라는 병적 증후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병은 몸의 공모이자 저항이며 때로는 몸이 하는 말의 번역이자 침묵이 되기도 한다. 아내가 온전히 자신을 발화(發話)할 수 있는 길은 광기를 통해서이다. 그러나 그 광기는 「망명녀」의 〈산호주〉에서처럼 명백히 병적인 상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머리가 쭈시고 〈가슴이 싹싹 소리를 지르〉는 몸의 반란을 억누르다 못해 아내는 그 여자(남편의 의도 상대)의 집으로 달려간다. 그 집 댓돌 위에 있는 남편의 구두를 집어들고 〈그년의 창문을 향해 던〉지고 나서 남편과 그녀, 〈나〉는 정면으로 마주친다. 그녀가 친정쪽 친척뻘 여자임을 알아보았을 때 〈나〉는 퐁퐁 묶여서 방안에 가두어지고 〈의사란 놈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과정을 겪는다. 광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 우선 나 하나를 돌아 보더라도 세상에 제 한 몸만을 위하고 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위한다면 이렇게 미치광이가 되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세상을 다 떨치고 내 맘대로 살고 있는 나이지만 불만이 많기가 끝이 없어요.

(나) 예에라, 집으로 가야겠다.... 누가 너희들을(아들, 딸-인용자) 보호할까... 비는 왜 이리도 많이 오노... 비를 노다지 맞고 가면 모두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백신애, 「광인일기」, 1938)

〈나〉는 열이 나고 몸의 이상징후를 느끼고, 견디다 못해 남편을 향해 정면으로 반발한 순간 정신이상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이는 자신을 세계에 표현한 후 광인으로 규정되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여성이 자기를 표출하는 순간 그녀는 가부장적 질서를 벗어나게 된다. 질서를 벗어나는 것은 곧 비정상-광인이다. 근대적 지식인인 남편은 의학이라는 근대과학의 도움을 받아 아내를 진단, 광인으로 규정해낸다. 그러나 아내의 광기는 불분명하다. 인용문 (가)에서처럼 〈미치광이〉가 된다는 것은 〈제 한 몸만을 위하고 제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위한다〉는 것이요 〈세상을 떨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미치광이〉로 규정된 〈나〉의 생각이고 더

구나 인용문 (나)에서처럼 집에 있는 자식을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으로 본다면 아내의 광기는 사실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 한편으로 <나>는 하느님께 하소연을 하다가 춥고 배고프다고, 냇물에서 고기 잡아먹으려 한다. 냇물을 마셔버리면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으리라는 <나>의 기괴한 행동은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처럼 <나>의 광기는 실제로 미친 것인지 아닌 지 불분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그것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다.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아니라 <광기>의 형식을 빌어야만 <나>는 이야기를 토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사이사이에 ‘하하하, 히히히’라는 광인의 웃음을 섞어 넣는 맥락은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연놈(남편과 그녀-인용자)에게 죄가 있을 리 있나요, 다 내 팔자지요>라며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 곧장 광기의 형식을 빌어 <하하하! 웃기는구나. 우스워 죽겠네>라며, 기존 질서 자체를 무화시켜버린다. 종종 광인들이 그러하듯 웃음은 기본적으로 언어적 상징의 금지에 대한 욕망의 침입인 경우가 없지 않다. 웃음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 속에 깃들인 항구적인 이중성이다. 웃을 수 있는 자는 자기와 타자를 동시에 보는 자다.²¹⁾ 결국 여기서 광기란 여성이 발화하는 형식이다. 그것도 몸으로 말하는 발화이다.

4. 맺는 말

1920년대 김동인을 비롯한 수많은 남성작가들이 ‘햄릿’형 인물에 그토록 열광했던 것은 햄릿의 고뇌가 역사적 상황과 개인의 실존을 고민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오필리어’형 인물은 아버지의 죽음과 애인

21) 신수정, 「비명과 언어」, 『푸줏간에 걸린 고기』(문학동네, 2003), p.45.

의 추방에 미쳐 돌아다닌다. 그녀의 광기의 원인은 거시적 차원의 것이 아니다. 그녀는 사적(私的)인 내밀한 사랑의 감정이라는 테두리에 묶여 있다고 보여질 뿐이다. 따라서 별반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그녀가 미쳐 버린 후 왕과 왕비 앞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원망과 갖가지 말을 쏟아 놓았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무당의 언어나 광기의 언어는 상징질서 내의 언어로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발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들이 히스테리나 광기, 몸에 대해 주목해왔던 이유도 그와 같다. 여성의 존재 자체가 말해지지 않는, 부재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3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소설화된 여성의 육체는 의미심장하다. 같은 신경증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 신경과민과 히스테리로 분리된다. 이때의 히스테리는 일종의 짜증, 결핍, 질투, 고부간의 갈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사적인 감정의 표출이다. 남성의 신경증은 이에 비해 예술 창작 동기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의 고민의 메타포이다. 이들 신경증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는 남성이고 그들의 응시는 여성의 것을 개인적인 신경증으로 치부하고 만다. 남성의 언어와 남성의 국가에서 여성작가들은 오히려 여성의 육체를 도착시킨다. 그들이 그려낸 도착적인 여성 육체는 특히 어머니의 몸이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라는 고유한 경험은 육체가 세계로 의미를 발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의미 발화가 코라(chora)의 풍부한 근원이 아니라 비체화된 어머니의 몸으로 전락하고, 여성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와 광기로 위장된다. 일체 강점기라는 특수성은 보다 강력한 아버지의 질서를 회구했고 부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더 가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재가 근원적인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체화된 몸은 끊임없이 어머니의 몸을 통제로 드러내 보이고, 히스테리와 광기로 위장된 여성의 목소리는 그 낯선 이질성을 틈새로 끼워넣는 데 성공한다. 여성 작가의 목소리가 낮고 음산하지만 그것의 울림이 이어지는 한, 여성은 발화(發話)되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동인, 『조선근대소설고』, 『김동인전집 16』, 조선일보사, 1988.
- 김양선,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과 몸의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8호, 예림기획, 2002.
- 김연숙, 「태평천하에 나타난 여성 타자의 근대체험과 대응방식」, 『한국근대문학연구』 8호, 태학사, 2003.
- 김한식, 「30년대 후반 소설에서 질병의 상징성 연구」, 『현대소설과 일상성』, 월인, 2002.
- 변신원, 「페미니즘과 몸으로 길 찾기」, 『여성문학연구』 제5호, 예림기획, 2001.
- 이명호, 「히스테리적 육체: 몸으로 말하기」, 한국여성연구소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3.8.
- 이재복, 「이상소설의 몸과 근대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01.
-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 책세상, 2002.
- 김미현, 『여성문학을 넘어서』, 민음사, 2002.
- 김윤식, 『이상연구』, 문학사상사, 1988.
- 김혜순,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은』, 문학동네, 2002.
- 신수정, 『푸줏간에 걸린 고기』, 문학동네, 2003.
- 이경훈, 『어떤 백년, 즐거운 신생』, 하늘연못, 1999.
- 이상경, 『한국근대여성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 이선옥, 『한국 소설과 페미니즘』, 예림기획, 2002.
- 여이연정신분석세미나팀 엮음, 『페미니즘과 정신분석』, 여이연, 2003.
-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 수잔 손탁,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 엘리자베스 라이트 편, 박찬부·정정호 외 역, 『페미니즘과 정신분석학 사전』, 한신문화사, 1997.
- 줄리아 보로사 저, 홍수현 역, 『히스테리』, 이제이북스, 2002.
- 크리스티나 폰 브라운, 엄양선·윤명숙 역, 『히스테리』, 여이연, 2003.
- 피터 부룩스, 이봉지·한애경 역, 『육체와 예술』, 문학과 지성사, 2000.
- 프로이트 저,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1998.

Abstract

A Study of the Representation of Woman Body in the 1930s' Novel

Kim, Yeon-Sook

In the literary studies of Japanese fierce colonizing period, disease does not mean simply a matter of material. It is considered not as a narrative of personal and private experience, but as a meaningful literary discourse. The disease including agony, gloom, weariness, nervous breakdown, and so on, has been discussed as a kind of "disease of metaphor" with a social and historical character. But this discussion has not been founded in the studies of woman character. This article aims to reconsider how and why woman or her body represented compared to man.

The woman body, particularly in the 1930s' novel appeared striking features. Above all, neurosis was divided into nervousness and hysteria according to man and woman. The hysteria at that time meant a personal and subjective sentiment such as fret, lack, jealousy, trouble betwee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 nervousness of man implied to a metaphor of creative motives or social and historical sufferings. The different expressions of neurosis result from man seeing it, who produces discourse and makes woman's trouble only a personal disease.

Women writers often pervert their bodies in the situation which man controls language. They represent particularly mother's body perverted. The characteristic experiences of women, for example pregnancy and delivery in the works of Kang Kyung Ae and Baek Syn Ae show that women speak to world by body. The body with speaking the meaning indicates not chora symbolizing the origin of

abundance but the abject. The woman's voice is also disguised as hysteria and madness. In the special circumstance of Japanese fierce colonizing, people require the powerful order of father and make woman to be silence. However, absence can't be nothing, original lack. The abject continues to disclose the mother's body, and the woman's voice disguised with hysteria and madness speaks in the crevice, or the strange space of heterogeneity.

key words : woman body, hysteria, mother's body, madness, abject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3월 31일 심사 완료 후, 4월 15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